

2015.10.18. 주일오후예배 메시지

엘리트 자녀교육

이사야 43:4

박상희 장로님

자살예방 관련 일을 정윤돈 목사님을 모시고 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최정웅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참사랑교회에 자주 온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You are a Very Important Person in God's eyes."). 가장 중요하고 보배로운 존재다(사43:4).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강남역 사거리에서 청소년들에게 어제 생명존중캠페인을 했다. 너무 놀라운 것이, 이분들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말 속에는 육신, 정신, 사회적, 그리고 영적 건강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WHO에서 정의한 건강이다. 이것은 다이나믹한 상태다. 곧 '성령충만하냐' 하고 묻는 것이다.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서 안녕하냐고 질문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고 묻는 것이다. 반드시 영적인 건강을 이해해야 한다.

게임은 하는 것인가, 즐기는 것인가? 전도는 하는 것인가, 되어지는 것인가? 같은 질문을 하겠다. 공부는 하는 것인가, 즐기는 것인가? 솔직한 질문을 해 보자.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모른다. 공부도 되어지는 순간부터 공부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항상 교육과 오락은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에듀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부를 시키니까 공부를 못 한다. 공부를 즐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공부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니 공부할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공부의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의 단계다. 공부 하면 즐겁고 재미있고 기쁘다는 것을 어릴 때 먼저 집어넣어야 한다. 그 인식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은 '공부' 하면 맞는 것, 혼나는 것, 주눅드는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건강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무리해서 집어넣는 것이 현재 상태다. 카이스트 석사과정 학생이 자살했는데, 유서를 남겼다. "나는 지금까지 공부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살한다."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속에서 공부가 나와야 하는데, 공부 위에 또 다른 것이 있는 줄 모르고 공부를 하니 실패한 것이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공부가 나오고 자녀 양육을 해야 한다.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유전적인 결정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결정 요인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 못 하는 아이가 성공하겠는가, 잘 하는 아이가 성공하겠는가? 통계를 보면, 머리가 좋은 아이가 공부를 못 한다.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느라 공부의 때를 놓쳐 버린다. 유전적으로 머리가 좋으나 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다. 남이 100시간을 하더라도, 내가 1시간 집중할 수 있으면 커버할 수 있다. 나는 아이큐 두 자리를 간신히 넘는다. 지금도 우리 아들이 나를 보고 동경대 박사 맞느냐고 물어보곤 한다. 공부는 실력이 아니라 요령으로 하는 것 아닌가? (웃음) 세상에 머리 좋아지는 약은 없다. 그래서 환경적인 결정 요인이 있다. 문화와 사회, 가족이다. 결국은 영적 전달과정 가운데서, 부모가 전달해야 하는 것이 영적 규모다. 이것만 전달해 주어도 된다.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야 한다. 지금 문제가, 가족은 있는데 가정은 잃어버렸다. 엄마, 아빠는 있는데 엄마, 아빠와 묶여지는 가정이 없다. 아빠가 퇴근하면 엄마도 방으로, 아이들도 방으로 들어가

고 강아지만 나와서 맞이해 준다. (웃음) 이것이 삭막한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어릴 때 무엇을 집어넣어야 하는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부분을 집어넣어야 한다. 영혼에서 정신, 즉 마음과 생각이 나오고, 이것이 의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된다. 그래서 영혼에 바른 것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다. 태영아가 왜 중요한가? 품 안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담의 영역에 들어가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공존하게 되어야 한다. 진도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대를 넘어가면서 계속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복음으로 잘 봐야 하는데, 잘 키워서 내가 뭔가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딱 들키는 것이다. 강남 아이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가. 수표를 용돈으로 줬는데, 아이들은 '엄마가 나에게 해 준 게 뭐냐' 하는 것이다. "진도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진도자의 아들로서의 자부심, 램프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라." 복음을 모를 때 나는 하루 종일 화가 난 얼굴이었다. 영적 상태였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붙잡아지니까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얼굴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인간은 영적 상태가 결국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 영력, 정신의 힘, 육신의 힘이 나를 만들어가서 결국 성공을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키울 것인지를 생각하며 설계하고 계획하고 구상하시기 바란다. 영적인 것이 그래서 어떻게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 지금부터 VIP로서, Vision을 심어 주어야 한다. 아이가 품에 있을 때 비전을 심어야 한다. I, 어릴 때부터 연합을 시키게 해 주어야 한다 (integration). 연합 속에 집어넣어 주어야 한다. 연합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어느 현장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 시기가 태영아 시기인 것이다. Power는 영적인 힘을 말한다. 육신적인 힘이 아무리 좋아 보아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어려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확실한 비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실제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심어 놓으면 수정할 때 너무 힘든 것이다. 공부는 일단 그래서 좀 덜 잘 해도 괜찮다. 공부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영성으로만 바르게 출발해 두면, 공부는 한 큐에 짝 올라와 버린다. 성령충만은 무서운 힘이다. 나는 중학교 1년, 동경대 1년, 딱 2년 만 집중해서 성령충만받고 공부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잘 하라는 말을 하지 마라. 공부 잘 하라는 말을 우리가 할 자격이 있겠나? 아이 공부 못 하는 것은 우리 닳아서 그런 것이다. (웃음) 그래서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다윗은 군인 출신 진도왕이었다. 어느 쪽에 달란트가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 주어야 한다. 어느 쪽으로 아이가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며, 어느 것을 즐겁게 여기는지 보아야 한다. 법대, 의대 다 보내면 안 된다. 전부 법관 하면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요셉은 경제 출신 진도왕, 바울은 법 출신 진도왕, 누가는 의사 출신 진도왕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시켜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공부 1등만 하면 위험하다. 꼴찌도 해 보게 되면,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키워야 할 것 아닌가. 어떤 일을 하면서 진도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행복할 것인가를 찾아주어야 한다. 아니면 세상 기준으로 키우다가 아이와 우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될 수 있다. 아이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어야. 그것이 진도와 연결되게 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솔직히 부모에게 그 능력이 없지 않나.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주제에 제시하려고 하면 그것은 멘토가 되지 않고 잔소리가 된다. 그래서 그 똑같은 이야기를 교회에 위탁하고 전문가에게 위탁해야 한다. 그

래서 전문인 조직을 우리가 44개를 만든 것이다. 그 전문인들 중에서 엘리트를 찾아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다. 법학, 의학, 종교, 모든 것이 다 있다. 거기 들어있는 전문인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을 멘토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44번째가 바로 자살예방 전문인 모임이다. 하필 4, 4다. (웃음) 자살을 바꾸면 살자,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자녀의 로드맵을 함부로 그리지 마라. 여러분이 그리면 욕심대로 그리게 될 수 있다. 진짜 영적으로, 아이가 어디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보라. 그래서 결국 자기 나름의 노하우를 터득하게 해주어야 한다.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공부 하라 마라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전부 TV보면서 아이 보고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만 한다.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래서 엄마가 TV를 보지 않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메시지를 듣는다 하면 이것이 영적으로 전달된다. 딴 짓 하면서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뇌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우리 뇌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다. 얼마나 복잡한가? 빅데이터를 만들어 보았는데, 전 세계 신문에 기록된 것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원리가 0, 1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0, 1의 개념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뇌와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뇌는 95%가 보수계로 구성되어 있다. 보상받은 것, 기쁜 것을 저장하는 곳이다. 벌계, 벌 받은 것을 기록하는 것이 5%다. 그런데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엄청나게 많아도, 벌 받은 것, 슬픈 것 5%가 95%를 지배해 버린다. 그것이 정신병이다. 이것을 막아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 보라. 기분이 아주 안 좋은 날, 거울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5분 만 웃어 보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5분 동안 웃을 때, 뇌에서 나쁜 흐름을 바꿔 버리게 된다. 나쁜 흐름 때문에 얼굴이 찡그러지고 팔다리가 저려 지는데, 5분 웃을 때 이게 엔돌핀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약 먹지 말고 5분 만 웃어 보라. 다만, 사람 없을 때 해야 한다. (웃음) 옆에 사람이 있을 때 하면 앰블런스가 달려오니까. (웃음) 그래서 현장의 상태를 그려 주고, 원하는 결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공부 못 한다고 절대 으박지르지 마라. 아이들을 끌어올려 주어야 한다. 이것을 runner's high라고 한다. 마라톤을 할 때 굉장히 힘든데, 어느 순간 이것이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 공부에도 이것이 온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나도 공부 안 한다. 동경대 운동장을 돌고, 그 밑의 체육관에서 수영을 한다. 그리고 밤 10시에 들어와서 30분 기도하면, 자동차가 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간다. 아침까지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아이들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모른다.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따먹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구박하지 말고, 작품을 만드는 시간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오겠는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달란트이고, 미션이다. 이것이 태영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